

한국의 결혼식은 다른 나라의 결혼식과 비교해서 독특하고 재미있습니다. 결혼하기 전 날, 신부의 집에 신랑과 신부의 친구 이 방문합니다. 신랑의 친구들은 동네의 입구에서부터 오징어를 얼굴에 쓰고 〈함 사세요!〉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동네 전체를 시끄럽게 합니다. 그럼, 신부의 친구들이 나와 흥정을 시작합니다.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온 가족과 친척과 동네가 파티의 분위기가 됩니다. 분위기가 고조되고, 이쯤되면, 신 의 친구들의 장난이 시작됩니다. 신랑을 눕히고 양발을 묶어 높이 들어 올립니다. 그리고 나서 명태라고 하는 말린 생선으로 발바닥을 때리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이것은 신부의 노래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부는 수줍어 하며 요구에 응하지 않고, 신랑의 친구들은 더 흥겨워하면서 발바닥을 계속 때리고, 친척과 아이들도 흥겨워 합니다.

신랑은 〈아프다〉고 소리를 지르면서 신부에게 〈노래해〉라고 말합니다. 그럼, 신부는 신랑이 걱정되서 노래를 하지만 장난기 많은 신랑 친구들은 신부가 노래를 못한다면 신랑을 더욱 세게 때립니다. 신랑은 아파하고 신부는 신랑을 보면서 안절부절못하며 「왁」하고 눈물을 터뜨립니다. 그럼, 신랑의 친구들은 아쉬워하면서 신랑을 놓아줍니다. 구경하던 사람들도 아쉬워합니다.

한국의 결혼식에는 이것 외에도 재미있는 것이 여러가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나라이든지, 결혼식이 아주 중요한 행사로써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라는 점에서 같다고 생각합니다.